



기독교대한감리회

청파교회

교회세운날 1908.5.1

너희도 서로
남의 방을
씻기 위하여 한다.

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
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
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

주 일 낮 예 배 순 서

【 대림절 2주 】

(2부 찬양: 397. 주 사랑 안에 살면)

인도 1부 : 이범석 목사

2부 : 김재홍 목사

- 전 주 반주자
- 임재의 기원 626.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(x3) 다 함께
-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
- ▲ 경배의 찬송 27.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 함께
- ▲ 공동기도 다 함께

자비하신 하나님,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. 부질없고 그릇된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들으며 우리의 눈과 귀는 지쳤습니다.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,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.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새로운 기운이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.

주님, 점점 어두워지고 냉랭해지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. 계절만 겨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풍경도 겨울이 된 듯합니다. 주님, 우리가 온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어둠과 냉기를 몰아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. 온통 겨울인 이 세상에서 서로에게 빛과 온기로 다가가게 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


- ▲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
- ▲ 위로의 말씀 사 9:6,7 인도자
- ▲ 교 독 문 116. 구주강림(2) 다 함께
- ▲ 영 광 송 2.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
- 2부 대표기도 박홍재 장로
- 2부 응 답 송 반주자
- 2부 찬 양 104. 곧 오소서 임마누엘 다 함께
- ▲ 성경봉독 출 32:1~5 1부:인도자/2부:김재영 집사

“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”
 “하나님, 감사합니다”

봉 독 자
 다 함 께

찬 양	I. 우리 주님께	마중물 찬양대
	II. 나의 기도하는 것	청과 찬양대
말 씬	아론의 시간	김기석 목사
거듭 기도		다 함께
2부 찬 양	484.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	다 함께
▲ 봉 헌	317. 내 주 예수 주신 은혜(1·5절)	다 함께
▲ 봉헌기도		김기석 목사
공동체 소식		김기석 목사
▲ 평화의 인사		다 함께
▲ 보냄의 말씀		다 함께
<p>인도자 : 교우 여러분,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.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자유인답게 사십시오.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여서 포기하거나 자기의 욕망을 따라 기다림의 대상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. 변함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믿음임을 잊지 마십시오.</p> <p>다 함께 : 아멘.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. 성급함을 버리겠습니다. 그릇된 것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. 언젠가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겠습니다. 주님,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. 아멘.</p>		
▲ 찬 양	635. 주의 기도	다 함께
▲ 축 복		김기석 목사

다음주	설교	기도	성경봉독	인도
1부	김기석	공동기도	인도자	이범석
2부	김기석	하현철	최병민	김재홍

-  청과교회 페이스북 <https://www.facebook.com/chungpachurch/>
-  청과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-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'예배실황' 클릭
-  청과교회 카카오톡 채널 : 친구검색창에 '청과교회' 검색 후 채널 추가
- ※ 현금계좌 : 새마을금고 9002-1751-3375-3 (예금주 : 청과교회)

